

신년사



사우회원 여러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택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면목일신面目一新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사랑하는 일이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 세월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나이 먹은 사람이다”

새해 벽두劈頭에 어느 지인으로 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나버린 많은 시간들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가늠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뤘던 일들을 새해엔 꼭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 바빴을 때 같으면 하찮게 생각했던 일들도 지금은 모두가 귀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1년간 저와 임원들은 나름대로 실용성있는 사우회 운영을 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대차 없는 결과는 된 듯합니다.

회원 복지사업으로 안과병원과의 제휴, 추모공원과의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 상당한 관심과 성과를 이뤄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로도 실익 있는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과 사회 환경은 해

를 거듭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우회의 여건도 확연히 전과 같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회원 연회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은 사우회 재원인 문화보험 수수료가 감소됨으로써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조정과 각종 행사비 긴축 등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위축감을 드리게 되었던 점은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상 문화방송 본사의 발전 여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상암시대로 크게 발전해온 본사는 방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난관들을 겹쳐 맞게 되어 임직원들의 필사적인 노고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사우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후

배들에 대한 배전의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선배로서 경험과 경륜의 지혜를, 공사 간에 기회 닿는 대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격려가 중요합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는 방송과 사회 환경의 조정 등으로 격변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 사우회의 친목과 복지를 보장하는 배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화방송의 발전, 회원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저는 사우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우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우회장 이 연 현

회장단, 고문들과 새해 인사 모임



사우회 회장단은 1월 6일(금) 마포가든호텔 식당에서 사우회 고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오찬모임을 가졌다. 노서을, 이수홍, 서규석, 우

윤근, 김민식 고문 등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이연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하신 모습들을 뵈게 되어 반갑고 오래도록 곁에 계셔서 지도,

편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 덕담이 오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이날 모임은 이수홍 고문께서 식사비용을 부담해주셨고 사무처는 고문들께 자그마한 선물을 드렸다.

2017년 정기총회 2월 24일(금) 개최

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4일 오전 11시 종로2가 YMCA건물 뒤에 위치한 ‘파노라마 뷔페’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안건

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파노라마 뷔페’(옛 우미관)의 위치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262. 02-734-4720~1, 지하철 1호선 종각역 7번 출구 골목안입니다.

회비 수납계좌 변경

회비 수납 계좌가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사우회 거래은행인 구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에 통합됐기 때문인데, 당분간은 기존 구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해도 변경된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각종 회비가 인상·조정됐습니다.

조정된 회비 내역은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50만원, 입회비 5만원입니다.



2016 사우회 '송년의 밤' 성황리에 마쳐



‘2016 MBC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5일 오후 6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는 이수홍, 서규석, 노서을, 김민식 고문, 강성구 전 사장, 이연현 사우회장과 김수

량 전 회장을 비롯한 회원 6백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참석 회원들은 메인홀인 그랜드볼룸과 아젤리아홀, 릴리홀등 3개홀을 가득 메웠다.

이현우(Ann)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이연현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사 55주년을 맞아 상암동 시대를 연 MBC 임직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뜨거운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올해 사우회 운영재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긴축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아쉽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

면서, “회원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새해에는 회원들의 기대를 넉넉하게 채울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광한 MBC 사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에 매출이 하락하고 특히 광고 매출에서 당초 750여억원의 감소가 예상됐으나, 많은 노력으로 당초 예상보다 소폭 적자 내지 흑자경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여의도 사옥의 개발 등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2017년에는 UHD방송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경품 추첨 및 여흥행사 등이 생략된 채 조촐하게 치러졌다. MBC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복은 참깨 2병과 2017년 다이어리를 증정했으며, 사우회는 2017년 사우회원 수첩을 1권씩 전달했다.



광고 유치수당 첫 지급

사우회보의 외부 광고 유치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광고 유치수당 지급’ 계획의 첫 번째 수혜자는 유희근(보도)회원으로 결정됐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작년 11월25일 유희근 회원에게 광고유치 수당으로 금일봉을 지급했다. 사우회는 본사와

계열사에 치중돼 있는 광고를 외부업체에도 확대하기로 하고 유치하는 회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유희근 회원은 11월호 사우회보에 편강한의원 광고를 유치해와 수당 지급 1호 대상자가 됐다.

동호회 회장단 일부 개편

사우회 동호회 회장단이 일부 바뀌었다. ‘바둑 클럽’은 고영일 회장 후임으로 박종규(기술) 사우회 부회장이 취임했고 김진홍 총무는 유임됐으며, ‘한문공부반’은 투병 중인 양진수 회장 후임으로 권혁화

훈장이 회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캘리그래피 동호회’는 정인영 씨가 회장, 유재석 씨가 총무로 선출됐다. ‘등산클럽’과 ‘골프클럽’ ‘낚시클럽’은 현 회장단이 유임됐다.

저출산 문제를 생각한다



정 경 수(ANN)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국의 번영과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막상 나라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누군가 나서서 해결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위기와 남북통일이라는 중대한 과제는 늘 우리를 긴장시킨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현실적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60~70년대에 정부는 산아제한을 권장했다.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펼쳤던 과거사도 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망론’을 거론해야 하는 처

지에 놓여 있다. 3년 안에 지금과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5년 후에는 인구수가 줄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동이 지금의 반으로 줄어 버린다는 놀라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오늘날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와, 자녀 갖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주택마련은 물론, 불어나는 한 사람의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겨우 직장을 마련한다고 해도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할 경제적 여건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가정을 꾸려도 두 자녀 이상 갖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에게 꿈과 미래를 보장받도록 이제는 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이마를 맞대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서기 2700년쯤 대한민국은 ‘전설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인구학자들

의 예전을 단지 겁주는 말이라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앞으로 15년 후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반으로 줄어든 것이며, 기존 교육시설은 학생이 없어 외국학생들이 보충된다면 그 뒤에 한민족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한반도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문화는 본디 효를 중심으로 이뤄진 공동체에 기본을 둔다.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를 비롯해 온 가족이 그들의 성장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가족 제도였다. 그러나 90년도 이후 핵가족화 되면서 오늘날 전 인구의 25%가 홀로 살아가는 상황이 됐다. 우리의 인구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독립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풍토를 다시 형성하는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국가는 결혼가정에 이천만원의 결혼비용과, 한 자녀 출산비와

육아 보육비 등을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렇듯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모여 지난 5월 ‘한국가정문화진흥재단’(이사장 정경수)을 결성하고 저출산 해결 방안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국민의식을 새롭게 하여 젊은 세대의 새 결혼가정 꾸리기와 효 사상을 살려 ‘한 가족 다함께 살기 운동’도 펼칠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5개년 계획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예산 256조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여론을 반영할 것이다.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인구학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가정문화진흥재단은 활기찬 미래를 위해 온 국민들의 힘을 모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혼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이며 사우회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경조사항

구수 : 최광민(편제)03/17
팔순 : 황선영(기술)02/06 이효일(업무)02/20 오청엽(관리)02/22
 정 진(보도)02/24 전종구(기술)03/02 박연원(편제)03/09
 박세림(대구)03/18 홍성묵(관리)03/18
고희 : 권태섭(기술)02/03 구궁서(청주)02/13 박복만(편제)03/02
 김규홍(관리)03/05
회갑 : 선동규(보도)02/03 정관웅(보도)02/04 오문환(편제)02/08
 조중현(편제)02/09 이우호(보도)02/10 오성수(편제)02/13
 안창균(관리)02/14 전영배(보도)02/15 강세영(편제)02/20
 이명자(편제)02/20 김관식(관리)02/20 정영철(관리)03/01
 윤길용(편제)03/03 최문정(ANN)03/06 이인용(보도)03/08
 정중희(기술)03/10 이재훈(기술)03/15 박용규(기술)03/18
 장기재(보도)03/19
결혼 : 홍신숙(관리)장녀11/13 윤정식(보도)장남12/04
 이우용(편제) 딸 12/10 김철영(편제)장녀12/17
 송기남(관리)장남12/17 서태건(기술)장녀12/24
 김필환(관리) 딸 01/07 윤종선(기술)장남01/07
 이우철(기술)아들01/14 권윤성(기술) 딸 01/15
부음 : 심원택(보도)모친상11/17 김세하(기술)모친상11/23
 홍명표(관리)장인상11/23 이춘호(관리)모친상11/24
 이상로(보도)부친상12/02 장명호(편제)장모상12/04
 이종철(관리)상배 12/07 김영한(관리)장모상12/09
 권수훈(관리)모친상12/11 김종진(편제)장모상12/13
 강철용(편제)장인상12/28 김 영(편제)모친상01/04
 신민철(관리)모친상01/04 이은숙(관리)시부상01/04

신규입회 : 김종한(관리) 010-5633-1636 동작구 노량진로 6길, 80-17

평생회비 : 김종한(관리)11/16 최한상(관리)12/31

연회비

11월 : 강철호(17) 권수훈(16) 김충남(13~16) 노홍식(16)
 박삼열(18~20) 박한성(18) 이종구(16) 최영돈(14~16)
 12월 : 강진택(06~16) 구종회(16) 권오용(17) 김상욱(17) 김상호(17)
 김세일(15~16) 김윤근(17) 김점용(17) 김종수(17) 남기두(17)
 박기윤(17) 박성숙(19) 박종완(16) 배상호(17) 백성원(16)
 손도정(17) 송인익(16) 안동진(10~16) 유승재(00~17)
 이강용(15~17) 이대교(17) 이동섭(16) 이명수(16~17)
 이명자(15~16) 이상원(17) 인형식(16) 장기재(17) 전병욱(17)
 정병준(17~21) 최대홍(17) 최영호(16)
 1월 : 권항택(17) 이은숙(14~17) 정명환(17) 조미숙(14~17)
 표재순(16, 80세 납부 끝)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특별회원 : 이환익 010-5755-3320 서초구 서초대로 33길 84-20
 편제 : 김철영 010-4222-5786
 김해원 010-9538-3347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22
 박 종 양천구 목동동로 401
 박흥영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29번길
 방영희 시흥시 찬우물2길 12
 정계춘 010-2073-7596 광진구 구의강변로 42
 진경현 시흥시 찬우물2길 12
 최양묵 010-5304-5353
 보도 : 선동규 송파구 위례광장로121
 정동영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정병운 010-8915-2396
 정태성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난로
 최근식 010-2912-7081
 최영언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45번길 91
 ANN : 최경미 경기 화성시 동탄나루로 55
 기술 : 김휘성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49
 박영달 인천시 서구 검단로 836
 박임실 양천구 목동동로 393
 오준상 광진구 광장로 9길 28
 이한익 010-3259-4825
 관리 : 강인숙 중랑구 봉우재로71길
 김성규 강남구 논현로 205
 김호석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68
 박미숙 서대문구 수색로 100
 오원섭 용산구 이촌로 87길 13
 이관영 경기 광주시 태봉로 86
 임무혁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전형찬 양천구 신정로 260
 최정순 송파구 잠실로 88
 대구 : 김광안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31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창봉(전 사장) 작년 12월 29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1956년 5월 첫 방송을 시작한 HLKZ-TV의 연출과장으로 발탁되어 한국 최초 TV방송의 시작에 동참했다. 1961년 KBS-TV를 출발시켰고, 이후 동아방송(DBS)을 개국시켰다. 1989년 MBC 사장에 취임하여 “리얼리즘의 방송, 방송의 민주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했다.



김영재(업무) 12월 1일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1970년 문화, 경향 광주지사에 입사해 광고영업 업무에 종사했다.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로 자리를 옮겨 1994년 국장으로 퇴직했다.



윤건일(기술) 12월 16일 급성 폐렴으로 20일 동안 입원 끝에 별세했다. 향년 75세. 1968년 동양방송 기술국에 입사했다가 1975년 3월 MBC로 자리를 옮겼다. 라디오 기술국에서 일하다가 1993년 8월 명예퇴직했다.

동/호/회/소/식

문기회: 문화방송 OB기자 모임인 문기회(회장 정홍보)는 작년 12월 16일 여의도 ‘신동양’에서 회원 64명이 참석한 송년회를 가졌다. 보도국 공채 2기 신형창, 노영일 회원부터 28기 오상우 회원에 이르기까지 선후배 회원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특히 최근 퇴직한 신입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송재우(춘천MBC 사장), 윤영무(BBQ 부사장) 회원이 후원했고, 모든 회원들에게 상품권,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경품들이 주어졌다.

인사동클럽: 라디오 PD들 모임인 인사동클럽(회장 장명호)은 작년 12월 5일, 22명의 회원이 강남

역 ‘딘타이펑’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MBC라디오 ‘싱글벙글 쇼’의 진행자 김혜영 씨가 방송 3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고, 장명호 회장은 김혜영 씨에게 축하 기념패를 전달했다.

문경회: 문화방송·경향신문 광고인 모임인 문경회(회장 우윤근) 회원 50여명은 금년 1월 10일 저녁 서울 세종호텔 2층 은하수홀에서 신년 하례회를



갖고 새해 인사와 함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문광회: 문화방송 광고인 모임인 문광회(회장 한웅희)는 작년 12월 8일 15명의 회원이



모여 청계천 트래킹을 마치고, 을지로 4가 ‘본고향맛집’에서 송년 모임을 갖고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회/원/동/정



차인태(ANN) 어렵게 건강을 회복해 현재 협성대 광고학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계룡대에서 장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으며, 지자체에서도 특강 요청이 많아 왕성한 강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창영(보도) 강원대, 성균관대 등에서 객원/초빙교수로 강의하다가, 2014년부터 2년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공화국 자문관으로 '키르기스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한 정책자문을 했다. 작년 9월부터 강원랜드 홍보팀 상근 자문위원으로 정선 현지에서 근무 중이다.



박기병(관리) 작년 12월 5일, 계간지 '재외동포저널' 2호를 발행했다. '재외동포저널'은 재외 동포들의 소식을 고국에 전하고, 국내에서 추진

하는 관련 정책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교민과 고국을 잇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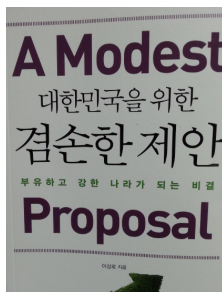
양성호(보도) 실내 건축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작년 11월부터 서울, 대전, 속초 등지에서 클래식 음악실 등의 첨단 3D 방음설계 및 시공 실적을 올렸다.



신낙균(편제) 작년 12월 14일~20일, 인사동 '아이갤러리'에서 작품전을 가졌다. 신회원의 고회를 맞아 마련된 이번 작품전에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속삭임' '기다림' '머물고 싶은 곳' 등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상로(보도) 언론인 32년의 경험과 10여년간 읽은 500여권의 서적, 매일 3종 이상의 신문을 읽어 얻어진 통찰력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 저서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을 발간했다.



정호준(기술) 전남 광양에서 '해달별 천문대'를 건축,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 12월 14일에는 광양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천문가의 별별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열강, 특히 중고생들의 박수를 받았다.



전용학(보도) 작년 11월부터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여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다. 현재 천안에 있는 휴먼벤처연구소 대표로 재직 중이다.



박영태(기술) '송년의 밤' 행사장에서 회원들의 얼굴을 개인별로 촬영해 사우회 홈페이지와 사우회 다음 카페에 게재했다. 관심 있는 회원은 사우회 홈페이지(<http://mbcsau.com>) 앨범이나 카페(cafe.daum.net/mbcsau) 영상 갤러리에서 자기 독사진을 볼 수 있다.



김휴선(보도) 최근 방송포럼 역사탐방단 일행 20여명과 연해주 일대를 방문,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생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되어 독립운동을 했던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 등을 둘러 봤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양윤주(기술)

최근 새로운 미디어로 떠오른 가상현실(VR)에 대해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려고 제시했던 문구입니다. 대학에 있다 보니 그간 방송제작 현장에서 익혔던 것 외에 새로운 것을 찾아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상현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 건진 문구였습니다. 말인즉 기존의 영상이 '화자의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이야기'라면 가상현실은 '세상 안에 들어가 세상의 중심에서 서서 둘러보며 스스로가 스토리 텔러가 될 수 있다'는 요지로 설명하면서, 생각할수록 가상현실을 설명하는데 꼭 들어맞는 말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이제껏 살아온 저에게 참시나마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동안은 이 문구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연구실에 있으면서도 가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 대학에 있지?' 하면 가깝게는 김수량 총장님과 인연이 그 이유였고, 더 따지자면 사회 첫발로 디딘 MBC와의 인연이었고, 더 더 따지자면 79년도 제3회 MBC 대학가요제에 대학 밴드로 참가하면서부터 그 인연이 시작되었던 같습니다.

이미 1978년도에 배철수 선배님을 포함한 '활주로 10기' 밴드가 '탈춤'이라는 자작곡으로 참가하여 대중의 많은 인기를 받았었고, 바로 다음 해에 '살풀이'라는 자작곡을 들고 활주로 11기로 참가하여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가요제 본선 생방송을 진행하느라 정동 공개홀 플로어에서 동분서주했던 제작국의 김명수 선배님과 부조정실에서 한두 번쯤 뵈는 것 같은 심상수 사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본선 결과는 입상에 그쳤지만 그때 가지고 나갔던 '살풀이'라는 곡이 '탈춤'에 이어 한국적 해석이 깃들인 음악으로 호평 받았었고, 나름 대학가에서는 기타

좀 친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던 '영 일레븐'이라는 프로그램과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도 해보고 대학가 축제나 행사가 있는 곳에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바쁜 대학 생활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공과목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다시피 하면서 TBC 가요제와 이후 후배들과 함께 또 MBC 대학가요제 본선에 참가해서 총 3회의 대학가요제 본선 참가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고, 졸업 이후에도 MBC 국제가요제의 노사연 백 밴드로도 참여했었고 녹음실 세션맨, 작편곡, 나이트클럽 밴드 등의 음악 활동을 하다가 MBC 공채 시험에 덜컥 붙게 되어 부모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청산하고 MBC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이후에도 약간의 미련이 남아있어 신입사원 초기에는 시간만 나면 음악소리가 들리는 녹음실에 자주 들렀던 기억도 납니

다. 콧수염에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김광곤 선배님과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던 기억도 나고요, 이제는 학교에서 정년퇴직하신 심상수 사장님, 강철용 선배님, 정문종 선배님, 김수량 회장님과도 MBC로 맺어진 인연으로 비교적 최근까지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주 시민이 되어, 얼마전 마당의 감을 따다가 겨울 눈맞은 흥시를 라이브(?)로 따먹어 볼 요량으로 조금 남겨두는 등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사우회보를 통해 회원 선배님들의 근황도 변방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강의로 마주친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화두에 대한 나름의 답은 '네가 거기에 왔잖아?'입니다. 오지랖이 넓지 않은 편이라 몸담았던 부서 외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 번 꾸~벅 인사드립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구요!

쿠바



박흥영(편제)

지난 해 겨울, 공연관계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 안주로 올랐다. 1996년 음반 취입 당시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멤버들은 거의 7~80대 노인들이었기에 모두 타계했고 유일한 여성 보컬 '오마라 포르투온도'만 생존해 있다. 그녀도 어언 90이 다 된 할머니지만 아직도 공연을 한다고 했다. 그녀를 중심으로 젊은 쿠바 뮤지션들을 규합해 제2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초청공연과 실황음반 제작사업 아이디어가 나왔다. 성공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했다. 결국 그녀의 가창력도 확인하고 여러 조건도 살필 겸 쿠바를 직접 방문해 사전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 집은 당연히 연출자인 내게 맡겨졌다.

쿠바의 문은 간결하면서 살벌했다. '바라데로'공항의 입국심사는 여행객이 심사대에서 멀찍이 떨어져 차렷 자세로 서있고 카메라가 전신을 촬영한다. 심사원은 질문도 없이 여권을 살펴보고 힐끗힐끗 날카로운 눈빛으로 여행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다. 그렇게 들어간 쿠바는 비즈니스를 하기엔 참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였다. 지면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양측의 필요조건 간격이 너무 큰데다, 쿠바 쪽의 공연 비즈니스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어 망설임 없이 일찌

감치 포기했다. 부담스런 짐을 벗어버리자 쿠바여행은 한층 즐거워졌다.

수도 '아바나'에 있는 동안은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박집을 이용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얻은 주소를 가지고 물어 물어 찾아간 그 집은 국회의사당 서쪽의 달동네 골목길에 12층짜리 허름하고 낡아빠진 빌딩이다. 2인 침실 하루 숙박비는 6인실 공동숙소보다 두 배 비싼 30CUC (약 3만원). 간단한 아침식사까지 해결해준다. 중년의 흑백혼혈 주인아줌마는 넉넉한 체구처럼 마음씨가 푸근하다.

앞서 그곳을 거쳐 간 한국 젊은이들이 다음 사람을 위해 한글로 작성해 놓은 쿠바여행 안내책자를 보여주며 나를 반겨준다. 새벽이면 '꼬끼오~'하고 길게 뻗을 치는 닭울음소리에 잠을 깨곤 했다. 온 동네가 건물마다 옥상에서 여러 마리의 닭을 친다.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중심가의 특급 호텔에서 묵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진풍경이다. 전기사정이 좋지 않아 자주 정전이 되는데 그럴 때면 숙소인 10층까지 계단을 더듬으며 걸어 올라가야 한다. 몇 번이나 그런 소동을 겪었는데 한번은 9층에 사는 젊은 아가씨와 함께 정전을 당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속을 잘도 올라갔다. 핸드폰 전등을 켜고도

더듬거리는 나를 친절하게 손을 잡아주며 '늘 있는 일상'이라고 했다. 급수 사정 또한 열악해서 높은 층에는 한 밤에만 잠깐 개미 오줌처럼 졸졸 나오기에 미리 커다란 통에 물을 받아놓고 세수나 용변 후에 사용해야만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엉덩이 받침 의자가 없는 양변기였다. 주인아줌마에게 물으니 물자가 부족해서 부엌 집 아니고는 모두 그렇단다. 실제로 고급휴양지 '바라데로'에서 묵었던 호텔도 마찬

가지였다. '그럼 어떻게 일을 보느냐'고 물으니 주인아줌마는 똥똥한 몸으로 내 앞에서 양변기 위에 쪼그려 앉는 모양

을 흉내 내고는 폭소를 터뜨렸다.

'아바나'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였다. 음식이 이상했는지 속이 안 좋아 화장실을 찾았다. 역시 의자 받침 없는 양변기였다. 용변이 급해서 얼른 올라가 쪼그려 앉는데 불편한 자세 때문에 변기 뒤 물받이 뚜껑을 건드렸다. 묵직한 사기 뚜껑이 순식간에 미끄러지더니 산산조각이 났다.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더니 공안원이 달려왔다. 거칠게 두드리며 문을 당장 열라는 것이다. 목소리를 들으니 젊은 여자다. 아직 일을 마치지도 못했는데 난감했다.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자 마치 흥악범이라도 잡은 듯 씩씩거리며 문을 지키고 있

다. 겨우 일을 보고 나오자 제복을 입은 흑인 아가씨는 깨진 뚜껑을 보며 큰소리로 상급자를 불렀다. 옆구리에 권총까지 찬 두 사람은 사납게 눈을 부릅뜨고 서툰 영어로 한 단어만 계속 소리쳤다. "Pay! Pay! Pay!"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이었다. 험악하기가 돈을 못 내면 즉결처형이라도 당할 것 같았다. 결국 4만원(40CUC)의 현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들에게 4만원은 몇 달치 봉급액수이기에 것처럼 사생결단하는 것이다.

순수한 관광객의 입장에서 (화장실만 조심하면) 쿠바는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나라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낙천적이다. '아바나'에서 만난 한 캐나다 남성은 자메이카나 멕시코에 비해 쿠바의 물가가 엄청 비싸다고 불평했다. '그런데 왜 오느냐'고 물으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쿠바여자가 최고'란다. 쿠바 여인은 잘 모르겠지만 쿠바 음악은 단연 으뜸이다. 길거리 뮤지션들의 음악은 수준 높고 감미롭다. 헤밍웨이가 술에 취해 거닐던 '오비스포'거리는 라이브로 연주하는 쿠바재즈 음악이 넘쳐나고, 헤밍웨이가 즐겨 마시던 칵테일을 맛보려는 관광객의 물결이 넘실댄다. 현재의 쿠바를 먹여 살리는 것은 '살아있는 텍수염 카스트로'가 아니라 죽은 텍수염 헤밍웨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비록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에 가난에 찌들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낭만과 정열이 넘치는 나라가 쿠바다.



MBC C&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었습니다.

MBC C&I

최창봉 스토리 - 1989

민 용 기(편제)

방송계의 큰 별이 서산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순수한 방송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오로지 외길 방송에 몸 바쳐 온 분입니다.
MBC 재직 4년간, 그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듯 일하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에겐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늘 그는 인간다운 냄새가 짙게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 당신의 방송에 대한 신념을 굽히거나 희망을 버리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마지막 방송 생활 4년간을 그와 함께 한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창봉 사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1.

‘MBC 사장을 맡아 달라’는 장관의 제의를 받은 것은 1988년 12월 어느 날. 둘이서 만난 자리였다.

최창봉은 처음엔 ‘자신 없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조건으로 결국 수락한다. 방송사 사장 자리는 원래 문공부장관이 추천하고, 청와대서 재가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상례다. 그 감투를 마다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치열한 로비가 있을 뿐이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의 친 정부적인 사장이 MBC 노조와 직원들에 의해 물러났다.

MBC는 선장 없이 표류하고 있었고 MBC문제는 정치 쟁점화하고 있었다.

정부는 한 발짝 물러서기로 한다. 굳이 정부와 가깝지 않더라도, 우선 MBC가 수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을 찾아 나섰다. 그 때 누군가가 최창봉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그는 평생 정치 같은데 한 눈 팔지 않고 방송에만 전념해온 골수 방송인이다.

최고의 카드였다.

하여, 친정부적 색깔이 없는, 비정치성향의 인물이 MBC의 최고경영자로 등장한다. 이것은 MBC 30년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다.

가히 시대적 산물이라.

그 후 6공을 거쳐 문민, 국민의 정부 등등에서도 그러한 ‘실수’를 두 번 다시 저지르는 일은 없었다.

공식적인 절차는 남아 있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사태가 정치 이슈화 되면서 국회에서 급조된 MBC의 재단이사회다. MBC를 정부로부터 독립시킨다는 취지로 설

립된 것이다. 1989년 1월초, 첫 소집된 방문진은 안팎 초미의 관심사인 MBC 사장 내정자로 최창봉 씨를 선출한다. 통과의를 치른 셈이다.

한 달 후인 2월 10일, 방문진 정기 이사회. 최창봉 사장은 그와 MBC에 동행할 이사진 명단을 처음 제출한다. 그는 지난 일개월간 동분서주하며 비밀리에 임원구성에 전력투구했다. 물론 이전과는 달리 정부 측과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으니까.

그는 두 사람의 전무이사 체제를 제의한다. 최대의 현안인 노사문제를 전담할 관리전무와 방송에 전념할 방송전무의 이원 체제였다. 방문진 이사인 나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는 방송전무로 나를 지명했다. 그 날까지 그는 개인적으로 일언반구의 언질도 준 일이 없었다. 단지, 어느 날 만나자고 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당신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들 하더군요만” 하고 나서,

“나하구 같이 일하자우”했다.

나는 사장 내정자 선출할 때 그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었다.

방문진 이사회는 그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동료이사들은 ‘방문진 이사 한사람이 전무를 맡게 된 것은 경사라면서 모두 축하해줬다.’

같은 날 오후 3시, 다른 공식절차인 MBC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남은 시간은 3시간 여. 최 사장과 두 전무 내정자는 프레스 센터에서 여의도로 가는 길에 마포 가든 호텔 지하 중극집에 들러 식사를 한다. 그런데, 최 사장의 표정이 아침과는 달리 밝지가 않았다. 얘기가 건성으로 돌아간다. 새 사령탑들이 처음 만난 자리치고는 식사 분위기가 너무 냉랭했다.

아침 이사회가 끝나면서부터 최 사장은 누군가의 전화를 계속 받는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식사를 마치고 여의도로 가는 차에서 그는 또 같은 전화를 받는다. 그러더니, 시간이 남았으니까 차를 한잔하자고 했다. 여의도호텔 1층 커피숍에 들어간다.

얼마 후, 비서가 ‘차에서 전화 받으시라’고 최 사장에게 알린다. 전화 받고 돌아 온 그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결심한 듯,

“이보라우, 임원구성 문제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따라줬으면 좋겠어”

“다시 생각했는데, 일단은 전무는 한 사람으로 출발했으면 해.”

그리고 나서 내 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당신은 그냥 이사 자리만 맡도록 해요.”했다.

순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했지만 입으로는

“알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했다.

주총 30분 전이었다. 3시 주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사천리로 끝났다. 방문진 이사장도 같은 전화를 받았음인지 입을 다물었다. 아침의 공식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3시간 후에 간단히 수정되었다.

그 날 사장에게 끈질기게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나중에 알려졌다. 최창봉 사장은 방송사 문턱에 들어서기도 전에 최초의 좌절을 겪은 셈이다. 그의 앞날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상징적으로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정부는 ‘모든 것은 일임하지만 누가 진짜 주인이란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몇 년 후, 나는 사장에게 물었다.

“그 날 차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청와대 보고와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 참”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가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같다. 청와대다.

K 차관은 KBS 보도본부장을 거친 방송인이다. 방송인이든 신문인이든 언론인은 일단 권력 근처로 접근하면 남들보다 강경해진다. 며느리의 설움을 쉽게 잊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나무랄 수야 있겠는가.

그로부터 10년 후, 1999년 7월, K 전 차관이 어느 세미나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이 TV로 중계됐다.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한 요체는

첫째, 인사상의 간섭배제,

두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배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오래된 소신입니다”

2.

“MBC가 왜 평민당과 손잡은 ‘빨갱이 방송’이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MBC가 왜 노조에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닌다고들 얘기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봉 사장의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가 부임하고 3개월쯤 지난 5월의 어느 날 저녁, 방문진 이사진과 MBC 임원 간의 식사 자리였다. 수저를 들까 말까하는 시간에 박용구 방문진 이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할 말을 먼저 해야겠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본사 임원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MBC를 몰아 붙였다. 회사의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때였다. 사장 이하 모두 묵묵부답, 답답한 심정으로 듣고만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판에 방문진 조차 도움을 주기는커녕 상황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최 사장이 그 말을 받았다.

“오늘은 이런 얘기 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MBC는 평민당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게다가 ‘빨갱이 방송’이라니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여기 간부들도 와 있지만 모두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입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젊은 혈기에 노조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일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엄격한 규제에 대한 반발이랄까, 호기심 이랄까 그래서 엉뚱한 프로그램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흥분했을 때 더 침착하고 논리 정연하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태껏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방 어딜 돌아보나 지뢰밭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여기 저기서 터집니다. 현장엔 현장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모두 조심조심 일을 풀어나가려고 밤 낮 정신 차릴 겨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해도 아쉬울 게 없어요.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동안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장의 발언은 쉴 틈 없이 이어갔다. 아무에게도 하소연 할 수 없었던 회사의 어려운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자리가 숙연해졌다.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배석한 임원들에게 있었으나, 한편 이렇게라도 해야 회사의 어려움을 이 해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 같은 것도 있었다.

그 날 식사는 드는 등 마는 등 내내 냉랭한 분위기로 이어지다 일찍 끝났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다.

3.

“경영진은 경영만 해라. 방송은 우리가 한다. 따라서 방송담당 핵심 국장은 우리가 뽑는다”

“무슨 소리. 방송사의 경영은 곧 방송이다. 방송의 최고 책임자는 사장이다. 국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1989년 7월에 시작된 단체협상의 최대의 쟁점은 핵심간부인 편성

국장과 보도국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 임명하느냐로 압축되고 있었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복지문제는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는 듯 일사천리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회사와 노조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협상, 결렬 또 협상 또 결렬. 시뻘건 글씨의 대자보, 회사 측의 반박 성명, 담화문, 또 대자보, 또 성명. 그러면서, 길고 무덤고 지루한 여름날들을 다 보냈다. 때로는 10층 회의실 창문으로 아침 동이 환히 트는 것을 보고야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철야회의도 밥 먹듯 했다.

‘지금 방송 안하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9월 초, 노조는 정석대로 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파업이 일상화되면서 ‘전가의 보도’ 가치는 점차 상실하고 있었다. 긴장은 엉뚱한 것으로부터 조성된다. ‘공권력, 즉 경찰병력이 투입 된다’는 무성한 루머였다. 소문 차원이 아니라 회사나 노조가 그 압박설을 확산하고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MBC사태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다. 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드문 계절이므로 그러한 발언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보도국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MBC가 비록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끝장을 낸다’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처럼 보였다. 노조 측은 긴장했다. 파업이지만 방송은 거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최 사장은 처음부터 강경 일변도였다.

“회사는 원칙대로 한다. 노사협상은 복지문제에 국한한다. 공정방송은 노사협회사항이 아니다”

하도 물러설 기미가 안보이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외부 압력 탓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최 사장의 웅고집 때문이구만” 라고 노조가 비명을 올리기도 했다.

회사라고 마음 편할 리가 없었다. 긴장하고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우리 회사를 경찰이 점령한다?”

한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무슨 결판을 내야지’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그래도 경찰 군화가 방송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긴박한 10여 일 간의 파업 끝에 회사와 노조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회사를 경찰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루 열 시간의 마라톤협상이 진행된다.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사장과 노조위원장간의 단독협상이다. 그 동안 간부들은 대 회의실에 모여 회사 측을 지원하고, 노조원들은 회의실 밖 복도와 계단까지 뺨뺨이 자리 잡고 노조 측을 응원한다.

마침내, 타협안이 성립된다.

국장 선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여기서 추천한 3명의 명단에서 사장이 국장을 선정 임명한다. 사원들의 직접투표는 철회한다. 그렇다면,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라는 마지막 쟁점이 남아 있었다. 회사와 노조의 5대 5 비율이 상식선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상식은 이미 우리나라 어느 구석에서도 좀처럼 통하지 않은지 오래 됐다.

노조는 4대6 비율을 주장한다. 머리 숫자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수보다 많다는 단순논리다. 냉철하게 생각하면, 양측 주장의 비율문제는 명분과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 전혀 무의미한 숫자놀음에 불과했다. 추천위원회가 어떤 비율로 구성되든 간에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하지 않는 한, 3명의 추천후보는 현실적으로 거기서 거기였다. 양측이 눈을 비비고 뽀터라도 결국 거의 동일한 인물들로 압축되게 돼있다. 세 사람의 국장 후보에서 사장은 능히 의중에 있는 인물 한 사람을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게 회사의 내부 현실이다. 노조 입장에서든 기본적으로 자격 미달인 후보를 단지 노조 동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후보로 추대할 수는 없을 테니까.

실제로 다음 해 3월, 노조는 일방적으로 3개 국장 후보자를 뽑는 사원들의 가상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그 때 추천된 후보는 현역 국장, 아니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도 능히 국장으로 임명할만한 사람이 포함됐었다. 게다가 누구든 간에 일단 국장직을 맡으면 회사 측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MBC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생리다.

다시 한 달여의 실랑이 끝에 명분 싸움에서 회사는 현실을 택하기로 한다. 길고 긴 고통의 협상이 비로소 해결의 관문에 들어선다.

“앞으로는 방송이다”

사장 이하 간부들은 협상을 끝내고 밤늦게 회사 근처 구마산 식당으

로 갔다. 모두 한 구석 찻집하면서 술을 마셨다. 평소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최 사장도 오늘은 소주를 말없이 여러 잔 들이켰다.

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사장이 조용히 한 마디 뱉었다.

“우리가 진짜 싸울 상대는 말이야.....CBR이야.”

다음 날, 사장은 C 장관을 방문한다. 그는 유능하고 소신 있는 언론인 출신 문공부장관이다. 문공부는 대한민국 언론을 총괄한다.

그런데, 그는 신문은 제쳐둔 채 무엇인가에 쫓기듯 방송 쪽에만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 내부문제는 제발 우리들에게 맡겨라.”

바깥을 향한 최 사장의 한결같은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MBC에서 시선을 떼는 일이 없었다. 사장을 맞은 C 장관은 MBC가 당장 무너진 것처럼 사장을 몰아 붙인다. ‘국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4대6은 곧 회사가 노조의 장악을 의미한다’는 논리였다. 우리 사회에서 양보와 타협은 미덕이 아니라 패배를 의미한다. 사장은 갑자기 온 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회사의 선택은 현실적이고 현시점에서 최선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최 씨 대 C 씨의 대결은 그렇게 시작된다.

점차 격앙되면서 문밖까지 고함 소리가 새 나을 정도로 진전됐다. 사장이 드디어

“내가 처음부터 언제 사장하겠다고 했냐, 이제 그만 자리를 내 놓겠다.”

고 으름장을 놓았다. 장관은 “그만 두더라도 사태는 수습하고 그만 뒤야 한다”

고 맞받았다.

사장은 방문진 이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다음 날부터 회사 출근을 거부한다. 회사는 큰 지진이라도 맞은 듯 술렁대고, 방송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마비된다.

며칠 후, 간부들이 과천의 사장 댁을 찾아간다. 옛 친구들과 관악상 등산길에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탈속한 노인네처럼 편안하고 평화스러워 보였다.

‘방송에 대한 정열만이 모든 길을 열 것’이라는 순수한 일념으로 몸부림치다 벽에 걸린 최창봉. 그 후, 그는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난다.

퇴임기자의 변명



윤영무(보도)

그 좋다는 MB
C를 떠나서 지금
의 제가 바뀐 게
있다면 우리 뉴
스를 별로 보지
않는다는, 다시
말씀 드려 애써
뉴스를 외면하

는 저의 태도입니다.

뉴스를 보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다 위
낙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우리 뉴
스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했
습니다.

‘그래도 30여년 가까이 방송기자
로 대접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잖은
가?’라고 물으시면 ‘뉴스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뉴스를 재미로 보느냐?라고 물
으시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유의 정치적 격랑이 이
는 요즘의 뉴스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편
이라거나 보수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보지 말아주십시오. 천지
개벽의 뉴스조차 재미없어하는 이
유는 순전히 제 개인의 경험과 생
각에 기인하고 있는데 어느 뉴스나
대동소이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떠나, 6학년이 되어 보니,
복잡한 세상사가 이제 손톱만큼 보
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어른스러
운 눈을 갖고 객관적인 제3자의 입
장에서 우리 뉴스를 볼 때는 재직

할 때와 느낌이 상당히 달랐습니
다. 뉴스의 내용 대부분이 제 생각
이나 시각과는 차이가 있었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만들겠다” 라는
생각이 앞서며, 인터뷰 단골인 정
치인들의 술수가 어떤 것인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들의 인터뷰
나 기자의 설명이 아니라도 제 나
름대로 계산이 되는, 나만의 인생
경험이 쌓여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청자들은 스트레이트 보
도보다 기자의 주관적인 분석과 생
각을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
다) 더구나 우리 뉴스의 대부분은
일찌감치 다른 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어찌 아까운 시
간을 내서, 우리 뉴스니까 귀를 기
울이거나 좌정하고 볼 수 있겠습니
까. 우리 뉴스 뿐이 아닙니다. 어디
를 틀어 봐도 비슷한 내용 뿐. 저는
정말이지 뉴스가 재미없었습니다.

뉴스를 만드는 후배 여러분들의
애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후배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세상이 변
화하듯, 기자정신이나 뉴스의 포맷
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퇴
직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 자의
소회를 적어 작금의 우리 뉴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저는 보도 자료에 의한 뉴
스는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세상에 대한 고민을 직
접 발품을 들여 취재해 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사만이 뉴스라
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기사
가 전체뉴스의 70~80%를 차지했
을 때 우리 뉴스가 재미있어지리라
 봅니다. 다른 방송, 신문에서 볼 수
없는 오로지 우리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뉴스 포맷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
니다. 방송 3사의 뉴스는 남녀앵커
가 편집회의에서 정해진 1번에서
20번까지의 아이টে을 순서대로 매
끄럽게 진행합니다. 과연 그런 방
식이 정보통신 혁명, 4차 산업의
진입이 시작된 지금 세상에도 유용
한 것인가요?

다른 나라, 다른 방송사가 어찌하
든, 우리 뉴스 포맷이 변화되어 21
세기 뉴스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저는 한때 뉴스데스크에서 ‘1원
의 경제학’이란 코너를 방송했습니
다. 육상트랙에 가서 시중에서 구
입한 두루마리 휴지의 길이를 재봤
더니 각각 75미터에서 80미터가
나와 계산해 보니 한 칸(뜸)에 1원
꼴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뒷일을 볼
때 보통 7칸을 쓰니까 7원을 쓴다
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만 지나치고 마는 모든
사물을 디테일하게 접근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라 그런지 시청자들로
부터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뉴스데스크 1분 시청률에 의하면
‘1원의 경제학’의 아이টে이 나갈 때
시청률이 최고 30%까지 솟구치더
군요. 강의 요청이 빗발쳤고, 저는
1997년 방송대상 기자상을 수상
했습니다. 뒤에서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 여러 선배들 덕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살고 있
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색다르
고 변별성 있게 사물과 사람, 사건
에 접근해서 발품을 팔고, 시대의
큰 흐름과 연결시키는 시각으로 나
만의 기사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뉴
스는 지금의 몇 배 이상 재미가 있
을 겁니다.

보도 자료를 참고하되 의존하는
기자는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
자정신은 보도 자료가 아닌, 모든
일상의 사물, 사람, 그리고 사건에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지하철, 버스, 골목, 식당, 길거리
등등 우리들이 어떤 몰입된 기자정
신을 가지고 치열하게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이것을 실
체라고 한다면- 현상을 찾아 누구
도 쓰지 않는 기사를 쓸 수 있으리
라 확신합니다.

그런 호기심과 재미로 우리 뉴스
가 채워지는 날, 모든 이의 눈과 귀
가 우리 뉴스로 고정될 것입니다.

MBC와 늘 함께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품격있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서
MBC가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는 최고의
공영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진흥, 학술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